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4 No. 2, pp. 209-215, February 2019
www.ksci.re.kr
https://doi.org/10.9708/jksci.2019.24.02.209

The Influence of the Digital Divide in Elderly's Traits

Young Eun Jang*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ed elderly people (≥ 65 years old) who used a senior welfare center in Chungcheongbuk-do.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filling survey method for 12 days. Total 289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nder and age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the factors causing the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Second,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Secondly,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health level, and occupation were factors creating the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This study suggest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Keyword: Digital divid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Ⅰ. Introduction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 중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신체적인 어려움, 경제적 빈곤, 역할상실, 관계단절로 인한 고독감의 보편화 등에 대한 안전망이 미흡하기 때문에 위기로 규정되어 지고 있다.

한편 최근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노인들에게 정보매체의 활용과 정보습득은 매우 중요한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복지정책의 중심 수혜대상인 노인은 다양한 정보습득과 공유를 통한 정보기회 확보가 사회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매개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인터넷 활용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습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의미들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안전망이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습득은 노인들의 삶에 유용성으로 작용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등록 노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48.5%로 약 절반의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실제로 노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목적으로 정보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들이 처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노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변화의 적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2]. 더하여 노인들의 사회적인 고립감을 해소하고 효능감을 증진시켜 노년기간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3]. 반면 정보화 사회로 인한 그 부작용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정보격차 지수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정보화 수준은 86.2%, 저소득층은 87.7%인데 반해 노년층은 77.4%로 큰 차이를 보였고 정보격차 평균인 79.5%에 못 미쳐 노인들의 정보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4]. 핸드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격차 지수에서도 저소득층은 74.5%, 장애인은 62.5%인 반면, 노년층은 56.3%로 정보 격차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태들은 정보화 사회가 발전되면서 정보의 취약계층들이 직면하는 정보의 불평등과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5]. 노인들에게 있어서 급성장하는 정보 기술의 발달은 노인들의 처한 상황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노인들은 과거 정보사회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정보사회 적응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이는 또 다시 정보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

• First Author: Young Eun Jang, Corresponding Author: Young Eun Jang
*Young Eun Jang (qkqh0120@seowon.ac.kr), Major of Social Welfare, School of Life Management, Seowon University
• Received: 2019. 02. 08, Revised: 2019. 02. 19, Accepted: 2019. 02. 19.

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문제는 정보중심의 사회에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양산해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고립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격차의 중요성에 기초하여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탐색적 연구나 실태조사 성격에 머물고 있어 노인들이 실제 지니고 있는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의 영향력과 요인을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공백상태에 있던 노인들의 실제 특성에 따른 경험적 연구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더불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해 낸다는 것은 노인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정보교육 환경에 대한 함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1. Digital divide of the elderly

정보격차란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 가능한 능력을 가진 자와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 차이가 심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4]은 정보격차에 대해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이것을 다루는 이용능력에서의 차이와 정보통신기기의 활용수준의 차이”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나아가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의 정의를 노인에게 적용해보면, 노인정보화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노인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고 이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이처럼 노인정보화는 노인의 사회복지정보화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세대로 정보화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세대이다. 인터넷 이용을 위해서는 학습이나 훈련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현 노인 세대들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업무를 할 기회가 적었으며, 교육과정 내에서도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이다[6].

1990년대 후반에 실시된 국가 중심의 정보화 촉진 정책에 따라서 인터넷 보급과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편입하지 못한 개인과 집단은 정보화 격차가 정치나, 경제와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국가는 사회계층간의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5년 주기의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각 부처가 수립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7]. 또한 장애인과 노인,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성별이나 직업, 소득, 학력 등 개인이 처한 다양한 특성에 따라 정보이용 능력과 관심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은 저학력일 경우, 소득 또한 저소득일 경우, 그리고 사무직 보다는 비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났다[1].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노인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전문 강사 육성에도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보화 교육의 질적 차이는 결국 정보의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8].

실제로 빠른 인터넷을 접속하는 환경과 인터넷 활용기간, 주당 인터넷 사용 시간, 웹 활용에 따른 노인의 태도와 인터넷 사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노인 계층 내에서도 고연령 노인들의 정보 격차와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9].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해 볼 때, 노인계층이 처한 정보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세대 간 이질감과 심리적 격차를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격차해소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처한 특성과 정보의 격차를 명확히 분석해 내고 이를 토대로 한 정보격차 완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digital divide

노인들이 경험하는 역할상실과 소외감 등이 급격하게 도래한 정보화 사회화 맞물려 세대 간의 갈등 외에 노인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혼란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인터넷 활용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하고, 취업영역의 활성화와, 노인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6].

선행연구에서도 노인의 인터넷 사용은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감 및 역할에 대한 상실 등 노인 삶에 있어서의 적응과정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11]. 나아가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정보나 자료의 습득 뿐 아니라 여가, 취미 활동기회, 뉴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학습 활동의 기회,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형성, 사회이슈에 대한 의견개진이 가능하게 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정보 습득의 수준에서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세대 간 이질감,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1]에서 실시한 장노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정보화 수준 차이, 즉 정보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

우 남성은 일반 국민에 비해 5.6%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5.6% 낮게 나타나 성별에서도 정보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50대 이상 장노년층은 일반국민에 비해 36.7% 낮게 나타나 노인들의 정보수준이 낮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직업의 경우 전문직과 사무직이 24.2%로 서비스판매직의 6.2%에 비해 높게 나타나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도 정보의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측면에서도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는 일반국민에 비해 16.9%로 높게 나타났으나, 기초생활수급자는 36.4% 낮게 나타나 소득수준에 의한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특성에 따라 정보의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비록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영향력 검증 결과들은 아니지만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볼 때, 노인 계층 내에서도 성별이나 소득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 계층 내에서 노인들이 가진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요인들이 정보격차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결정요인인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Ⅲ.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청북도 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 대한 설문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침서를 숙지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3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된 11케이스를 제외한 289사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2. Measurement tools

2.1. Dependent variables

노인의 정보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11문항으로 구성된 정보수준[11]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척도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활에 이용 정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카페 가입 및 동호회 참여 등 인터넷 활용정도를 묻는 11개 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총 11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최소 11점~최대 5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다.

2.2. Independent variables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로 선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 '여'로, 연령 측정은 '실제연령', 배우자유무는 '유', '무'로 구분하였고, 노인들의 학력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경제수준은 '상'에서 '하'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좋음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매우 좋다'에서 '매우 나쁘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좋음을 나타낸다. 직종은 퇴직 전 주로 종사했던 직종으로 '사무직', '서비스직', '기타'로 측정하였다.

3. Analysis methods and data examination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SPSS 21.0을 활용했으며, 조사대상 노인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과 정규성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방법을 활용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를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정보격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들의 다중공선성 검토와 정규성 문제를 점검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절대 값이 0.6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왜도와 첨도값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수의 절대 값 왜도는 -.023 ~ 1.480, 절대 값은 .452 ~ 3.482의 범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은 정규성이 의심될 만큼 왜도와 첨도값이 크지 않았다.

Ⅳ. Results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충청북도 내 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289명 노인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먼저 응답자 성별의 경우 '여자' 노인은 52.9%로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은 47.1%로 여자노인이 약간 많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70대'(62.6%), '80대 이상'(26.6%), '60대'(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는 '유'가 39.4%(114명), '무'가 60.6%(175명)으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학력은 '무학'이라고 응답한 노인이 31.8%인 92명, '초졸'은 24.5%(71명)로 응답노인 약 55%의 학력이 '초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이 응답한 경제수준은 68.2%의 노인들이 '중하'이하라고 응답했으며, 이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수준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상태에 대한 평가는 49.8%(144명)의 노인들이 '나쁘다'고 평가하였으며, '좋다'라고 응답한 노인들은 24.2%(70명)로 '나쁘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2.59). 퇴직 이전에 주로 종사했던 직종은 '기타'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	Total (%)
Gender	Male	136(47.1)	289(100)
	Female	153(52.9)	
Age	60s	31(10.7)	289(100)
	70s	181(62.6)	
	over 80	77(26.6)	
	Minimum: 65, Maximum: 88, Mean: 78.82		
Presence of Spouse	Yes	114(39.4)	289(100)
	No	175(60.6)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92(31.8)	289(100)
	Elementary School	71(24.5)	
	Middle School	48(16.6)	
	High School	35(12.1)	
	Techincal or Community College	23(7.9)	
	≥College Graduate	20(5.5)	
Economic Level	Low	121(41.9)	289(100)
	Medium-low	76(26.3)	
	Intermediate	80(27.7)	
	Medium-high	11(26.3)	
	High	1(0.3)	
	Minimum: 1, Maximum: 5, Mean: 1.94		
Health Status	Very Bad	61(21.1)	289(100)
	Bad	83(28.7)	
	Average	75(26.0)	
	Good	53(18.3)	
	Very Good	17(5.9)	
Occupation	Office Job	95(32.8)	289(100)
	Service Job	91(31.4)	
	Others	103(35.6)	

Table 2. Comparison of digital divide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구 분		(N=289)		
		평균	표준편차	t 값/F 값
Gender	Male	44.69	8.518	t=1.141**
	Female	41.46	9.739	
Age	60s	45.67	11.711	F=.420** a>b>c
	70s	42.68	9.135	
	over 80	40.72	8.705	
Presence of Spouse	Yes	42.65	9.512	t=.970
	No	41.30	8.935	
Education Level	No Education	40.88	9.536	F=4.896** a,b<c
	Elementary School	41.90	8.762	
	middle school graduates	45.27	8.110	
Economic Level	Low	40.32	8.537	F=12.121*** a<b,c
	Intermediate	45.70	9.605	
	High	46.50	7.994	
Health Status	Bad	39.25	8.393	F=18.595*** a<b<c
	Average	43.08	7.667	
	Good	46.80	10.034	
Occupation	Office Job	47.01	9.536	t=14.171**
	Non-Office Job	41.23	8.762	

*p<.05, **p<.01, ***p<.001
Age: a 60s, b 70s, c over 80
Education Level: a No Education, b Elementary School, c middle school graduates
Economic Level: a Low, b Intermediate, c High
Health Status: a Bad, b Average, c Good

35.6%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 32.8%, 서비스직 31.4%순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로 배우자유무에 따른 정보격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직종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은 '남자'노인(평균 44.69, 표준편차 8.518)이 '여자'노인(평균 41.46, 표준편차 9.739)에 비해 정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60대'노인(평균 45.67, 표준편차 11.711)에 비해 '70대'노인(평균 42.68, 표준편차 9.135)과 '80대'노인(평균 40.72, 표준편차 8.705) 집단의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무학'(평균 40.88, 표준편차 9.536)과 '초졸'(평균 41.90, 표준편차 8.762) 노인에 비해 '중졸 이상'(평균 45.27, 표준편차 8.110) 노인들의 정보격

Table 3. Effects of the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on digital divide

Classification		n=289	
		b	β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843	-.023*
	Age	-.006	-.493*
	Presence of Spouse	.243	.012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evel	.990	.583**
	Economic Level	1.683	.172**
	Health Status	2.004	.258***
	Occupation	1.153	.241***
R^2		.407	
Adjusted R^2		.372	
F		10.137***	

*p<.05, **p<.01, ***p<.001
**Gender: Male, Presence of Spouse: 'No', Occupation : 'Non-Office Job'

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4.896, p<.01), 경제수준은 '하'(평균 40.32, 표준편차 8.537)라고 응답한 노인들에 비해 '중'(평균 45.70, 표준편차 9.605), '상'(평균 46.50, 표준편차 7.994)이라고 응답한 노인들의 정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 '좋다'(평균 46.80, 표준편차 10.034), '보통이다'(평균 43.08, 표준편차 7.667)와 '나쁘다'(평균 39.25, 표준편차 8.393)고 응답한 순으로 정보수준이 높게 나타났다(F=18.595, p<.001). 직종은 사무직'(평균 47.01, 표준편차 8.536) 노인에 비해 '비사무직'(평균 41.23, 표준편차 8.762) 노인들의 정보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4.171, p<.0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본 모형의 설명력은 37.2%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137, p<.001).

먼저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배우자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별, 연령은 노인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의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β -.023, p<.05). 이러한 차이는 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를 경험한 현 노인세대가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생활로 인해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이로 인해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간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보수준이 낮아져 정보격차를 크게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493, p<.05). 인터넷을 활용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낮은 연령으로 인해 활용경험이 많았던 요인과 상대적으로 인지능력과 습득능력이 활발한 낮은 연령의 노인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은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직종이 노인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력 요인은 학력요인이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β .583, p<.01). 특히 학력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매체와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학력요인이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수준 또한 경제수준이 높을수록(β .172, p<.01) 정보수준이 높아져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또한 건강이 좋을수록(β .258, p<.001) 정보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건강하지 못한 노인일수록 정보습득 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과의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직종의 경우에도 정보격차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β .241, p<.001). 즉, 비사무직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정보수준이 높아 근무했던 직종은 정보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처럼 노인들이 지닌 특성들 때문에 이중 정보격차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가장먼저 노인의 특성별로 세분화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보활용 수준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며 나아가 정보의 소외계층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고민과 실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1].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노인들의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중심으로 정보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충청북도 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노인의 특성과 정보격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보격차 차이를 살펴본 결과, 배우자유무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성별은 '여자'노인이, 연령은 '60대' 노인에 비해 '70대'와 '80대 이상'의 노인 집단이, 학력은 '중졸이상'에 비해 '무학'과 '초졸' 집단이, 경제수준은 '중', '상', 집단에 비해 '하' 집단이, 건강상태는 '나쁘다'고 응답한 집단이, 직종은 '비사무직'에 근무했던 노인들에게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

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유무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의 경우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연령은 높아질수록 학력은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직종은 사무직에 비해 비사무직의 정보격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정보화교육 습득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여성친화적인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성별과 연령이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만큼 이러한 요인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저연령의 산업 활동 종사경험이 많은 노인들이나 교육습득 수준이 다른 노인들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정보화교육은 고연령 노인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중도포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을 고려한 프로그램 마련과 교육기준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로 전업주부의 역할을 수행한 현 세대 여성노인들에게 정보격차를 불평등하게 경험하고 있어 여성노인들을 중심으로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공하는 등 정보사회 진입과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성친화적인 정보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력수준과 퇴직 전 주요직장의 직종을 고려한 정보격차 해소노력이 필요하다. 노인인구 고령화는 결국 퇴직 이후에도 기본적인 경제활동 필요성 증가에 따른 정보 수집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저학력의 노인과 비사무직에 종사했던 노인들의 정보접근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니어종합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저학력노인들과 정보 활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사무직 노인들의 정보습득 기회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노인들이 정보화교육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근거리의 교육장소 제공이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정보격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다. 즉, 건강하지 못한 노인일수록 정보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은 건강정보나 이동, 여가정보 등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의 컴퓨터 활용이나 이용을 촉진을 위해서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서 정보화 교육이나 컴퓨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기반 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노인들의 심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여 노인들의 정보격차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port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igital Divide in the elderly, 2014.

[2] Kim, Hyei-Kyung, "A Study on the Inform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Aged, Vol. 20, pp. 69-94, 2004.

[3] Hye-Kyung Suh, Eun-Ju Kim,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Computer of the Older Adults", Journal of Welfare For Aged, Vol. 24, No. 2, pp. 21-39, 2004.

[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3 Digital Divide Survey, 2014.

[5] Cawlkell, T, "The information age-for better or for worse",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 24, No. 1, pp, 56-58, 1998.

[6] Shin Yong-Joo, Koo Min-Jeong, "An Explorative Study on Computer Education for the Elderly and Their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23, No. 3, pp, 147-176, 2008.

[7] Han Sae Eok, "A Study on the Evaluation Model of Regional Informatization Polic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3, No. 2, pp, 1-19, 2000.

[8] Kim Gu, "Discussions on Retrospection and Future Direction of Regional Informatization for Re-creation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Vol. 15, No. 1, pp, 27-51, 2012.

[9] Boulton-Lewis, Gillian M.; Buys, Laurie; Lovie-Kitchin, Jan; Barnett, Karen & Davis, L. Nikki, "Aging, Learning, and Computer Technology in Australia", Educational Gerontology, Vol. 33, No. 3, pp, 253-270, 2007.

[10]Hye-Kyung Suh, Eun-Ju Kim, "A Study on the Factors that Influence Attitudes toward Computer of the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4, No. 2, pp, 21-39. 2003.

[11]Sum S, Mathews R, Hughes I, Campbell A, "Internet use and loneliness in older adults",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1, No. 2, pp, 208-211, 2008.

[12]Bok-Ja Lee,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Elderly According to the Informatization Policy of the Region", Korean Journal 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23, No. 3, pp, 147-176, 2013.

Authors

Young Eun Jang Received the Ph.D. degrees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6. Dr. Jang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Seowon University, Chungbuk, Korea, in 2014.

The main interesting fields ar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lderly welfare.